

장려상

베를린 마라톤과 철인 3종이 기자 생활에 미친 영향은



news1
KOREA

황덕현 기자



엣그제 3km를 달렸다. 숨이 턱까지 찼다. 예전 같으면 몸을 푸는 정도의 거리였는데, 이번에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길게 느껴졌다. 무릎은 무거웠고, 어깨는 빠근했다. 회전근개와 무릎 힘줄이 상한 뒤 운동을 오래 쉬었다. 그 사이 체중도 많이 늘었다. 다치니 쉬고, 쉬니 몸이 무거워지고, 몸이 무거워지니 다시 움직이기 어려워졌다. 좋지 않은 순환에 빠진 셈이었다.

그런데도 다시 운동화를 꺼낸 것은 운동과 기자 생활 사이에 묘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달리기는 단순히 건강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 내게는 취재 현장에서 조금 더 오래 서 있기 위한 훈련이었다. 답하지 않는 사람 앞에서 질문을 접지 않는 힘, 밤을 새워 기다리는 힘, 낯선 도시에서 잠을 줄여 원고를 쓰는 힘은 모두 몸에서 나왔다.

학창시절부터 운동신경이 좋은 편은

아니었다. 몸은 둔했고, 뛰는 일보다 앉아서 책을 읽거나 컴퓨터 앞에 있는 일이 더 익숙했다. 체형도 운동선수와는 거리가 멀었다. 서울에 올라온 뒤 달리기를 시작한 것은 거창한 목표가 있어서가 아니었다. 외로웠고, 1.5평 남짓한 고시원이 답답했다. 밖으로 나가야 했다.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일이 달리기였다.

처음에는 오래 뛰지 못했다. 몇 분 뛰고 멈췄고, 숨을 고른 뒤 다시 뛰었다. 그러다조금씩 거리가 늘었다. 2010년쯤부터는 본격적으로 뛰기 시작했다. 한 달 누적 거리가 100km를 넘었고, 어느 때는 200km까지 올라갔다. 몸도 조금씩 달라졌다. 체중이표준범위에 들어왔고, 얼굴빛도 바뀌었다. 무엇보다 마음이 바뀌었다. 나는 생각보다 오래 버틸 수 있는 사람이었다. 누적거리는 5000km를 넘겼다.

달리고 나면 몸에 열이 올랐다. 그 열을 식히려고 찬물에 들어가다 보니 수영

실력도 좋아졌다. 버스로 한두 정거장 거리는 걸어 다녔고, 그러다 자전거를 타게 됐다. 아주 잘타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동호인들과 땀을 이뤘. 전국일주를 할 정도가 됐다. 그렇게달리기와 수영, 자전거가 한동안 내 생활의 중심에 들어왔다.

그리하여 제3회 국민안전처(현 행정안전부) 장관배 송도 트라이애슬론 대회, 제45회 독일 베를린마라톤, 제84회 서울국제마라톤 등을 완주했다. 결승선을 통과할 때는 도파민이 터져서 ‘무엇이라도 이런 듯한’ 대단한 성취감이 몰려왔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건 엄밀히 말하면 어떤 성취가 아니었다. 호르몬이 잠시 준 기쁨은 강렬했지만, 결국 버티고 버틴 끝에 도착한 하나의 ‘경유지’에 가까웠다.

완주의 의미는 결승선에만 있지 않았다. 더 중요한 것은 중간에 찾아오는 수많은 포기 충동을 지나치는 일이었다. 마라톤은 42.195km에서 끝났지만, 기자의 일에는 정해진 결승선이 없었기 때문이다. 사회부 사건팀에 있을 때 쌓은 체력은 예상보다 자주 쓰였다. 당시 상습도박 혐의 로경찰 수사를 받던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PD의 귀갓길을 보기 위해 10시간 넘게 기다린 적이 있다.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일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막상해보면 다르다. 언제 나올지 모르

는 사람을 기다리며 자리를 지키는 일은 몸과 마음을 동시에 갇아먹는다. 화장실을 가야 할지, 밥을 먹어도 될지, 자리를 비운 사이 대상자가 빠져나가지는 않을지 계속 계산해야 한다. 그날의 취재는 발보다 허리와 무릎이 먼저 기억했다.

정치권 취재도 비슷했다.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박정희 탄생 100돌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출범식에 나타났을 때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구 최순실) 씨와의 관계를 묻기 위해 취재진이 몰렸고, 현장은 금세 뒤엉켰다. 보좌진과 지지자, 취재진이 한꺼번에 움직였다. 질문을 하려면 앞으로 나아가야 했고, 앞으로 나아가려면 밀려나지 않아야 했다. 그때 필요한 것은 멋진 문장이 아니었다. 어깨를 빼지 않는 힘, 넘어지지 않는 균형, 질문을 놓치지 않는 집중력이었다.

보물선 돈스코이호 사기 사건 취재 때도 몸이 먼저 반응한 순간이 있었다. 공범으로지목된 최용석 전 신일그룹 대표를 취재하던 중 현장에서 이동이 벌어졌고, 취재진은 그를 따라 움직였다. 뛰었다. 숨이 찼지만 멈출 수 없었다. 몇 초만 늦어도 질문할 기회가 사라질 수 있었다. 그때 선두에서 그를 따라잡았다. 기사의 문장으로 남는 것은 짧았지만, 그 짧은 문장 뒤에는 달리기 훈련으로 익힌 호흡과 보폭이 있었다.

2026 기자의 세상보기



2019년 홍콩 민주화 시위 당시 모습

해외출장도 체력전이었다. 아이슬란드나 에스토니아처럼 한국과 시차가 큰 곳으로가면 낮에는 현장을 보고, 밤에는 한국 시간에 맞춰 기사를 써야 했다. 현지에서는 오전인데 한국은 오후 마감 시간이고, 현지에서는 밤인데 서울 데스크는 깨어 있었다. 이동하고, 듣고, 찍고, 확인하고, 다시 써야 했다. 하루에 기사 10건 안팎을 처리한 날도 있었다. 취재가 끝난 뒤 호텔방에 돌아오면 침대보다 노트북을 먼저 폈다. 그때마다 생각했다. 오래 뛰어들

시간이 없었다면 이 일도 오래 하지 못했을지 모른다고.

수영과 자전거, 달리기를 직접 체험하는 한강 '쉬엄쉬엄 철인3종' 르포 때도 체력이 도움이 됐다. 실제로 코스에 도전한 기자도, 완주한 기자도 1~2명에 불과했다. 한강수영 중 숨이 차 안전줄과 부표를 붙잡고 쉬기도 했지만, 결국 천천히 완주했다. 앞선 경험 때문이다.

대학원 생활을 병행할 때도 운동은 뜻밖의 기반이 됐다. 낮에는 취재를 하고 밤에는 논문과 통계, 정책자료를 읽었다. 겉으로 보면 책상 앞에 앉아 있는 일이지만 이것도 체력이 필요했다. 새벽까지 논문을 읽다가 아침 브리핑을 가고, 출장지 호텔에서 기사 송고를 마친 뒤 다시 발표자료를 펼친 적도 적지 않았다.

기후와 에너지 분야는 숫자와 개념, 산업과 정책이 하나로 얹혀 있다. 발전량과 전력망, 탄소배출계수 같은 단어를 몇 시간씩 붙들다 보면 머리보다 몸이 먼저 지쳤다.

그럴 때마다 오래 뛰면서 배운 감각이 조금은 도움이 됐다. 마라톤처럼 처음부터 속도를 올리면 오래 가지 못했다. 결국 중요한 건 순간적인 집중력보다 지치고 난 뒤에도 다시 다음 문장을 읽을 수 있는 힘이었다.

물론 나는 한창때도 이른바 ‘몸짱’은 아니었다. 근육을 자랑할 몸도 아니었고, 경기기록이 특출난 것도 아니었다. 베를린 마라톤 완주자 명단에 이름이 올라갔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었다. 트라이애슬론 대회를 마쳤다고 해서 삶이 극적으로 바뀌지도 않았다. 다만 나는 그 경험을 통해 한 가지를 배웠다. 대부분의 일은 재능만으로 끝까지 가지 못한다. 결국

어느 지점부터는 버티는 사람이 남는다.

기자 생활도 그랬다. 좋은 질문을 떠올리는 감각, 문장을 다듬는 능력, 사안을 읽는 판단력은 중요하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현장에 도착해야 작동한다. 현장에 도착한 뒤에는 끝까지 있어야 한다. 끝까지 있으려면 몸이 버텨야 한다. 기자에게 체력은 빨리 달리는 능력이 아니라, 물러서고 싶을 때 한 번 더 확인하는 힘이었다.

다친 뒤에는 체력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도 알게 됐다. 예전에는 한 번 만들어놓으면 계속 유지될 줄 알았다. 그러나 운동도, 취재 감각도 오래 손을 놓으면 무뎠졌다. 기사도 비슷했다. 어제 단독을 했다고 해서 오늘도 좋은 질문이 바로 나오는 건 아니었다. 몸과 감각은 계속 움직여야 유지됐다.

지금의 나는 예전처럼 뛰지 못한다. 3km에도 숨이 찬다. 무릎과 어깨는 예전 같지 않고, 몸은 쉽게 무거워진다. 그래도 다시 걷고, 조금씩 뛴다. 기자로 일하며 ‘언젠가’ 그만두기 전, 해보고 싶은 일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이다. 남극이나 북극, 기후붕괴의 최전선에 있는 오지를 찾아가 기후변화의 현실을 직접 보고 쓰고 싶다. 가능하다면 언젠가 우주정거장에서 지구를 바라보며 칼 세이건이 말한 “창백





베를린 마라톤 출발지점 모습

한 푸른 점”을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다.

그런 꿈이 허황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기자의 일 중 상당수는 애초에 조금 무모한 마음에서 시작된다. 질문 하나를 들고 문 앞에서 기다리는 일, 답하지 않는 사람을 향해 다시 묻는 일, 남들이 지나친 장면 앞에서 멈추는 일도 모두 그렇다. 무모함이 취재가 되려면 근거와 확인이 필요하고, 그 근거와 확인에 닿으려면 때로 몸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도 다시 발걸음을 내딛는다. 기록을 줄이기 위해서가 아니다. 누군가를 따라잡기 위해서만도 아니다. 조금

더 오래 현장에 있기 위해서다. 베를린의 결승선과 송도의 바닷물, 서울의 아스팔트가 내게 가르쳐준 것은 하나였다. 기자의 일은 끝까지 가보는 사람에게 조금 더 많은 장면을 허락한다. 아마 나는 그 장면들을 조금이라도 더 오래 보기 위해 다시 뛰는 것 같다. 🏃‍♂️

뉴스1 황덕현 기자